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43-59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43

KJHD

# 예비 해기사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arly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Female Ship Officers

1차원고접수: 2026.07.10. 수정원고접수: 2026.08.26. 최종게재결정: 2026.09.19.

김유나[1] · 조한익[2]
[1]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Kim, Yu Na[1]
Cho, Han Ik[1]
[1]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예비 해기사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 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61개의 의미단위, 13개의 주제, 5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경험은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한 진로선택, 제복을 갖춘 통제적인 대학생활, 학업과 승선훈련 병행의 이중고,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 여성 해기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엄격하고 통제된 대학생활로 인하여 답답함과 대인관계 및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해사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역량을 습득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여성 해기사 양성을 위한 해기 교육의 중요성과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해사대학, 여학생, 대학생활 경험, 현상학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arly university experiences of female ship officers in maritime education. Four students enrolled at K University participated, and their experiences were analyzed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analysis yielded 61 meaning units, 13 themes, and 5 categories. Findings highlight career choices influenced by tuition and personal growth, regimented campus life under uniform discipline, the dual challenges of academic study and onboard training, the supportive community of peers, and efforts to develop as female ship officers. Participants reported frustration and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s due to the strict environment, yet they also acquired essential attitudes and competencies for seafaring and achieved personal growth.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initial university experiences of female ship officers an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policy attention in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female ship officers.

**Keywords** *maritime college, female students, school experience, phenomenology*

Corresponding to 조한익(Cho, Han Ik)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mail. h1652@gnu.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운산업은 세계 12위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해기사는 해운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입 물동량 99.7%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 해기사는 바다를 통한 물자의 운송을 비롯하여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기능하므로, 해운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청년 해기사의 장기 승선에 대한 기피로 해기사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연합뉴스, 2023.7.30).

국내 해양대학과 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해기사 육성과 배출을 목표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해기사들은 바쁜 운항 일정과 낙후된 근로 환경, 승선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고립감 등으로 승선을 포기하거나 해외 송출을 희망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 해운 노・사・정은 선원의 유급 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도 외항 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인력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해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우수한 외국인 해기사 도입 체제 마련과 더불어 여성 해기사에 대한 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박과 해운 분야에서 여성 해기사의 진출 범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여성 해사인의 비율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적선에 승선하는 여성 해기사의 비율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 대학 등 국내 해기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 정원은 10~15%로, 정원 제한을 30%로 확대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신문, 2022.6.13). 개교 이래 해사대학에 여학생이 입교한 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성 해기사 배출의 사회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사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기사로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승선 생활에 대비하고자 승선생활교육과 해양 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재학 동안 제복을 착용하며, 국비 지원으로 수업료와 승선생활관비 및 식비, 피복비 등을 면제받고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군복무 대신 상선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해결하고자 해사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특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해사대학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초기부터 직업적 경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기사로서의 직업정체성 형성과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사대학 입학 이후 여학생들은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으며 이는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박유진, 김승연, 2022). 또한 해사대학 여학생들은 엄격한 기숙사 단체생활, 여학생 취업 장벽 등으로 대학생활에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김승연, 박준모, 정대득, 2020).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해사대학의 특수한 교육환경에서 여학생들이 어떻게 초기 대학생활을 경험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예방적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해운과 항만 분야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여성 해기사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저조하고, 여성 종사자의 비율 또한 낮다. 특히 군사 전문 교육 현장에 있는 사관학교의 여생도들과 해사대학의 여학생들은 남성 중심성이 강한 문화에서 소수자로 생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도들의 경우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학생활의 의미가 군 조직에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여성 사관생도들은 사관학교 교육 훈련의 첫 단계에서 육군의 가치를 지향하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인수 등, 2021)에서 알 수 있다. 반면,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경우 대학생과 예비 해기사로서의 통합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대학생에서 해양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화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해사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은 해기교육과 훈련에서 여학생이 직면하게 되는 성비불균형의 현황과 문제(최은순, 2023), 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박유진, 김승연, 2022), 여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기초연구(김승연 등, 2020) 등이 있을 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나 심리적인 상태, 혹은 예비 해기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에 다니는 예비 해기사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여성 해기사로서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초기 대학생활은 해사대학의 학업과 공동생활, 생활규율, 훈련 등의 제도적 환경에 처음 진입하여 적응해 가는 시기로, 통상적으로 신입생 시기인 1학년 말까지로 판단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지향하며 현상의 본질을 밝히고 기술하는 연구방법(Omery, 1983)이다. 특히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은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진술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를 분석하므로 해사대학에서 여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특수한 생활세계를 기술하고, 이러한 세계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 그러한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대학생으로 기대했던 자신의 모습과 실제 해사대학에서 요구되는 규율과 생활방식 등이 충돌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여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Giorgi, 1997,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해사대학에 다니는 예비 해기사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양산업 분야에서 여학생들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 산업 인력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2. 연구문제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에서 나타나는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의식적인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Moustakas, 1994), 학내 홍보를 통하여 연구참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풍부한 설명이 가능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K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1학년 여학생들이다. 1학년은 대학교육 전체 과정의 시작으로서 학문을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는 시기이므로, 초기 대학생활 경험은 이후 학업적 측면이나 사회적 관계, 진로 탐색이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학업과 승선생활교육을 함께 이수하는 해사대학 학생들의 특성상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완료된 상급 학년보다는 신입생의 초기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고하고, 성별에 따른 지원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1학년 여학생들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더불어, 해사대학 내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 중 해기사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선박 운항에 필

표 1.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

| | 학년 | 학과 | 출신 지역 | 대학 입학 동기 |
|---|---|---|---|---|
| 연구참여자 1 | 1학년 | 기관시스템공학부 | 광주광역시 | 입시 결과에 맞춰 진학 |
| 연구참여자 2 | 1학년 | 기관시스템공학부 | 광주광역시 | 학교 선배의 추천 |
| 연구참여자 3 | 1학년 | 항해융합학부 | 대전광역시 | 자의적 진로 결정 |
| 연구참여자 4 | 1학년 | 항해융합학부 | 인천광역시 | 부모의 권유 |

요한 핵심직무와 해기사 면허 체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학과의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해사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각각 1 ~ 3회로 회당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 1은 3회(6월 초부터 8월 중순, 총 190분), 참여자 2는 1회(9월 중순, 총 90분), 참여자 3은 2회(11월 초부터 중순, 120분), 참여자 4는 1회(12월 초, 총 80분) 면담에 참여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면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질문이 요구되는 경우 개인별 전화 통화나 메신저를 통하여 답변을 제공받았다.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허락하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해사대학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주로 해사대학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또는 해사대학에서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문항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해사대학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뒤 연구참여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해사대학 학생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질문의 문항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혼란을 주는 문항은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로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시 녹음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면담 후 자료를 전사하고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경험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났는지 확인하였다. 면담 중 현장의 분위기나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현과 태도들은 연구자 노트에 정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에서 의문점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다음 면담의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가 연구참여자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내용

| 질문 내용 |
|---|
| 1. 해사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2. 학과 생활이나 승선생활관에서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
| 3. 동기생 및 선배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
| 4. 여학생으로서 대학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5. 해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나 역량에 대해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
| 6. 해기 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발견된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Creswell, 2013; Giorgi, 2009). 자료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고, 연구참여자의 언어 즉,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기술과 분석을 강조한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Giorgi, 1991, 2009)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인식을 얻고자 노

력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판단 중지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직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연구 전체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면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61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의미단위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면서 중심의미를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였다. 심리학적 언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중심 의미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1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원자료에 근거하여 참여자의 진술을 다시 비교하는 순환적 분석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근거로 5개의 범주를 도출하고, 범주화한 이후 경험의 의미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등록금을 안 낼 때, 학교에 오기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옷도 제복 하나만 그냥 입고 다니면 되고. 등록금이나 거의 다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왔어요.” 라는 원진술을 ‘학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듦’이라는 의미단위로 전환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로 표현하여 경제적 부담과 안정성이라는 주제로 통합하였다. 이는 학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도출된 범주를 살펴보면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한 진로선택,

표 3. 의미분석 과정

| 범주 | 주제 | 의미단위 |
|---|---|---|
|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한 진로선택 | 경제적 부담과 안정성 | 학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듦, 취업이 잘되는 이점이 있음, 가족과 지인들이 권유함, 입시의 결과로 선택함,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음 |
| | 세상에 대한 탐구와 성장 욕구 | 독립적인 성격을 지님,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 도전정신이 강함, 호기심이 많은 태도, 공학에 대한 관심이 높음,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가짐 |
| 제복을 갖춘 통제적인 대학생활 | 기대와는 다른 대학생활 | 아파도 참고 견딤, 빼곡한 일정에 항상 피곤함, 자유로운 대학생활에 대한 갈망, 이상과 현실에 괴리감을 느낌 |
| | 단체생활에서의 긴장감 | 눈치 없는 행동에 대한 미움, 친구이자 경쟁자라는 인식을 가짐,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발생함,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사이로 생각함, 자퇴하는 동기들에게 부러움을 느낌 |
| | 선배들에 대한 양가감정 | 과도한 트집으로 인한 반감 형성, 억측과 비난에 대한 억울함, 기강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따뜻함과 온정적 태도, 조언자이자 보호자 |
| 학업과 승선훈련 병행의 이중고 |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체력적 한계 직면 | 전공 교과의 생소함, 어려운 내용과 학문적 용어, 부족한 학업 시간, 남학생과 다른 신체적 조건, 체력 관리의 어려움 |
| | 차별화된 실습기회 | 외부 실습 기회의 부족, 여학생을 꺼려하는 업계의 분위기, 여학생을 남학생 보다 적게 선발함, 성적이 좋아도 실습하기가 어려움 |
| | 체계화되지 않은 승선생활교육 | 교육과 훈련이 매우 엄격함, 규정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함, 체계화된 메뉴얼의 부재, 잦은 변동으로 인해 혼란을 느낌, 학생들에 대해 무관심함 |
|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 | 적응을 위한 현실과의 타협 |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임, 적극적으로 즐거운 활동을 탐색함, 규칙적인 생활에 순응함, 다양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함 |
| | 긍정적인 지지체계 형성 | 동기들을 의지함, 동기들 덕분에 버틸 수 있음,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함 |
| | 공동체 속에서 심리적 연대감 | 집단 활동으로 일체감과 소속감 고취, 대학 문화를 통한 연대감 증진, 학생 활동을 통한 친목 형성 |
| 여성 해기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 해기사가 되고 싶은 마음,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싶은 욕망, 육상 근무를 희망함, 꾸준한 학점 관리,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함, 외부 실습에 대비함, 부족한 역량에 대해 생각함 |
| | 전인적 성장과 역량 향상 | 인격적으로 성장함,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탐색함, 해기사로서 직업적 역량을 습득해 나감 |

제복을 갖춘 통제적인 대학생활, 학업과 승선훈련 병행의 이중고,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 여성 해기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과 안면이 없는 상태였으나, 과거 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해사대학 학생들에 대한 배경적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연구 초기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해사대학 여학생 중 연구결과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참여자를 선정하여 의미분석의 과정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 과정이 연구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과정에서 경험이 왜곡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용들을 수정하였다. 셋째,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 연구자들의 선이해를 탐색하였으며, 현상학적 괄호치기를 통해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들은 “해사대학에서는 자유로운 대학생활이 힘들 것이다.”, “여학생들은 소수이므로 차별받을 것이다.”, “해사대학 여학생들은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등 해사대학 여학생들에 가진 선이해를 기록하였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여 자기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논점들을 객관화하고자 노력하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연구자들은 계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주제를 재분류하거나 통합하였으며, 연구 결과에서 해석이 미흡하거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더불어 연구자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 원자료를 재검토하고, 해석의 근거와 범주화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절차 등 연구 전반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에 관해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연구 보고서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함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

#### 1)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한 진로선택

연구참여자들은 해기사가 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으며 다양한 동기로 해사대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입시 결과를 비롯하여 부모나 지인의 권유도 있었지만 자신의 적성이 항해사나 기관사에 적합하여 진로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가치관에 따른 삶의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1) 경제적 부담과 안정성

연구참여자 4는 부모님 두 분 다 해사대학을 졸업하여 해운과 해양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해사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기관과였던 아버지의 조언으로 항해과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고, 학업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다. 대학 졸업 후 승선을 희망하며, 오래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연구참여자 2는 고등학교 시절 잘 알고 지내던 선배의 추천으로 해사대학에 관해 처음 알게 되었다. 학비가 저렴하고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목포해양대를 나오셔서....해양대를 가라 해서 왔어요. 아빠가 기관과는 힘들다고 하셔가지고....아무래도 기관과 보다는 항해과가 덜 힘들겠지라고 하셔가지고 오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4).

고등학교 때 아는 선배가 여기 해양대를 왔다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해사대를 알게되서 그 선배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는 학비도 싸고, 돈도 별로 안 들고....취업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연구참여자 2).

(2) 세상에 대한 탐구와 성장 욕구

연구참여자 1은 해군사관학교로의 진로를 희망하다 합격하지 못하여 해양 관련 학과를 탐색하게 되었다. 입시의 결과로 해사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배를 타서 바다를 순항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승선을 하게 되면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환경적 상황이 본인에게는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힘들기는 하지만 빨리 독립하여 혼자서 개척해 나가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의 경우는 학창 시절 운동을 하여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전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 탓에 해사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였다. 타대학에 진학할 경우 진로에 관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사대학의 경우 명확한 진로와 정해진 교육과정이 자신에게 더 잘 맞을 것이라 판단하여 해사대학에 진학했다고 하였다.

약간 저는 배를 타고 싶었고....바다를 순항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배 타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해보고, 배도 종류가 많잖아요. 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런게 하고 싶어서 (연구참여자 1).

처음에 부모님이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약간 제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우신 거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다가 그래 네가 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시면서....근데 저는 아무래도 여기 오는게 좀 더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진취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퇴를 하게 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연구참여자 3).

2) 제복을 갖춘 통제적인 대학생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기까지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관계이므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갈등 속에서 부딪히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 관계였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배와의 갈등과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들의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1) 기대와는 다른 대학생활

연구참여자들은 타지에서 통제된 생활 속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과가 빼곡히 정해져 있는 데다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워 대학생활에서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특히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아픈 경우 더욱 신체활동 수행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생활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거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경우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기도 하였다.

자유롭게 살다가 틀에 박혀서 저희 몇십 명이 다 똑같이 행동해야 하니까....거기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바로 나갔거든요. 그게 맞지 않으면 바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아팠을 때가 유독 힘들어요. 아침에도 나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또 보고를 해야 되고....가족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녁 인원 점검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평일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 주말에도 12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외박을 써요. 옷도 사복은 안돼요. 몰래 사복 갈아입고 걸리면 엄청 벌점을 받아요 (연구참여자 2).

(2) 단체생활에서의 긴장감

연구참여자들은 해사대학에서 학과 생활뿐만 아니라 승선생활관에서도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많은 상황들을 직면해야 했으므로, 동기들에 대해 비단 좋은 감정만을 경험할 수는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성격으로 인해 단체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일부 학생들이 눈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에게 지적이나 심한 모욕을 당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동기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졸업까지 계속 볼 수 밖에 없는 사이였으므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는 학과 성적을 잘 받아야 하므로 동기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이 잘 되기 위해 해사대학을 선택한 자신과는 달리 재학 기간 동안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하여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교를 자퇴한 동기들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24시간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불편한게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기숙사 생활인데....일반대 기숙사에서도 둘만 다투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방 안에도 관리를 하러 오시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일반대 기숙사는 그냥 한숨 좀 쉬고 내가 더 청소하면 되는데 저희는 외부적인 게 걸려있고 그러니까....(연구참여자 3).

진짜 막 실수해서 그런거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했는데....무슨 일부는 폐급 같이 그러는....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바보같이 행동하면 화가 나요. 왜냐면 눈치 없이 행동하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체 막 다 같이 혼나요. 애들이 싫어해요 (연구참여자 1).

(3) 선배들에 대한 양가감정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선배들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선생활관의 생활교육은 대체로 생활교육지도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 자치기구인 사관부와 교육지원부의 선배 학생들이 지도관의 교육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교육에서 학교 선배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배들에게 과도한 트집이나 근거 없는 비난, 억지스럽게 깎아내리는 등의 행동으로 분노나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공포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반면, 자신을 따뜻하게 잘 챙겨주거나 고생했다며 다독여주는 선배들에 대해 위안을 얻기도 하였으며,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억지로 트집 잡는 거.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딱히 트집 잡을 일도 아닌데 그냥 쥐어 짜내서 트집 잡아요. 어제 위생 점검하는데 신발장 위가 여학생들이 키가 잘 안 닿잖아요. 근데 사관님이 이 먼지 뭐야? 니네 안 닦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하겠다 말고 이유를 묻잖아 지금. 대답. 대답 안 해?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

선배들도 입학했을 때 저희의 감정을 아시잖아요. 힘들겠다....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더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랑 같이 편의점 가도 그냥 당연히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졸업하시면 저희가 선배

가 되는 입장이잖아요. 내년에는 너희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 3) 학업과 승선훈련 병행의 이중고

연구참여자들은 예비 해기사로서 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학업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선박·해운 업계의 여학생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으며 성차에 따른 불평등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해기 교육과정에서 인식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연구참여자들의 학업과 훈련에서 몰입을 방해하였다.

#### (1)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체력적 한계 직면

해사대학의 교육과정은 선박 운항에 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역량과 위기대처능력 등을 길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해사대학 학생들은 이러한 직업 적응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아직 1학년 학생들로서 전공교과의 생소한 내용으로 학문적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정해진 일과로 인해 수업 외 학업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하기 어려워 학업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활에서 체력적인 차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체력 함양은 예비 해기사에게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기준점에 차이를 두어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체력적 한계를 규정해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를 야기시키기도 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부족한 체력적 역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약간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처음이 정말 힘들었는데....그래도 이제 공부는 그냥 다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근데 문과 친구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리나 수학 같은 것들이 이과에서 졸업했다는 걸 가정하고 교수님들이 가르치셔가지고 문과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연구참여자 3).

공부 시간이 없어요. 저희 하루 일과가 진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인원 점검받고 운동하고 씻고 밥 먹고 오전 수업 가서 하루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청소하고 다림질 해야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요. 피곤해요. 그리고 내일 운동이 구보냐 근력이냐 그것도 중요해요. 다 모여서 운동하는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목소리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 봐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남자애들이랑 차이가 있어요 (연구참여자 1).

#### (2) 차별화된 실습기회

연구참여자들은 향후에 있을 외부 실습 기회에 대해 차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 해운업계의 영향으로 위탁 실습의 기회를 얻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들도 불평등을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직 신입생 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위탁 실습을 위한 학점 관리 및 어학 성적을 갖추기 위해 학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실습 기회 자체가 남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현실에 차별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은 실습을 하려면 잘해야되요. 실습 기회 자체가 아예 달라요. 회사에서 여학생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연구참여자 1).

여학생은 실습 가기가 남학생보다 훨씬 힘들어요. 티오가 적고. 학교 배는 다 타는데....외부 실습. 그래서 일단 학점하고 토익하고 상점이 있거든요. 그걸 남학생은 진짜 솔직히 못해도 잘 가요 (연구참여자 4).

#### (3) 체계화되지 않은 승선생활교육

승선생활관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일과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과 조직 관리를 위해 학생 자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 교수와 지도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승선생활교육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일정의 변동이 잦고 일처리가 늦어 학교 생활 및 개별 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학생 자치회인 사관부와 교육지원부의 교류 부족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더불어 선배들의 무리한 요구와 트집을 제지하지 않는 생활교육지도관과 교수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격한 학칙과 규정들은 연구참여자들의 해기사로서 자질과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행동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중요한 공지랑 덜 중요한 공지가 있다면 덜 중요한 공지가 너무 많아서 중요한 공지를 놓치는 느낌이에요. 진짜 일정에 관한 일처리가 빨라지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일정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뭐가 있다는 거를 너무 늦게 알려줘요. 변동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3).

사관부랑 교육지원부가 본인들 끼리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둘이서도 교류가 안되는 것 같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주고 물어볼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답변이 안 올 때도 굉장히 많고. 귀찮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4).

#### 4)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

자율성이 부족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만이 터득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만을 가지고 좌절하기 보다는 대학생활의 장점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관심사에 기초한 대인관계를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대학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드러났으며,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적응을 위한 현실과의 타협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주어진 환경과 타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해기사의 주요한 능력으로 리더십과 추진력, 결단력이나 체력적 강인함 등 전통적으로 해상에서 요구되는 남성적 규범들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이 남학생인 학교 환경에서 동기들과 함께 교류하며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더불어 대학생활이 많이 답답하였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통제된 환경은 해기사로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등록금을 내지 않을 때 학교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체념을 했어요. 적응하려고요. 일단 제가 나가지 않는 이상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기관과가 거의 여자가 없어가지고. 한 8대 2? 정도 되는데....저희가 남자가 돼요. 남자애들이 많아가지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애들이랑 차이가 나는데, 그거 빼고는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저는 이런 통제된 환경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배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지낼텐데....여기서 통제 안 된 환경을 살다가 배에 가면 금방 적응을 못하고 내릴 거 아니에요. 배에서 하는 것 만큼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요 (연구참여자 3).

##### (2) 긍정적인 지지체계 형성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연구참여자들에게 같은 처지의 동기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하루 일과 중 아프거나 쓰러지는 동기들을 보

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교육과정을 끝까지 잘 이겨내자고 동기들과 다짐하며 이들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통해 안정된 정서를 경험하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그런게 있어요. 애들이 초반에 자퇴할 때마다 문 앞에 과자를 하나씩 두고 가요. 잘 있어. 막 이러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애들이 이제 종강할 때 우리 이번에는 자퇴하지 말자. 여학우들하고 남학우들하고 같이 그래요. 근데 가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생각 해야 되지....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확실히 동기들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서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동기들이에요 (연구참여자 1).

단체생활하니까 오래 서 있고, 인원점검 하다보면 애들이 쓰러져요. 근데 그 정도 친구들은 진짜 아픈 상태가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쓰러지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배를 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3).

(3) 공동체 속에서 심리적 연대감

해사대학 학생들은 늘 제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학생들간의 전통과 문화의 형성으로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지역별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도 하며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며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교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제복 입고 나가기 힘든데....이 옷을 입고 나가는 그 한 번 한 번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외출할 때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나가면 그렇게 노는게 재미가 있으니까....그래서 한 번 나갈 때 되게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오게 되요 (연구참여자 3).

학교에 적응 하려고 동아리나 이런 거 들어가서 친구도 많이 만나고....동아리 생활은 이제 평일에 하니까 그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연구참여자 2).

### 5) 여성 해기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대하였던 교육과정을 배우고 예비 해기사로서 꼭 필요한 전문성을 체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해기사로서의 직업적 역량과 해양・해운 분야에서의 진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 나갔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된 대학생활을 해기사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며, 여성 해기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해사대학에 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비 지원과 졸업 후 선박에 승선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4년의 시간이 흘러 졸업하게 된다면 해기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배를 오래 타고 싶은 열망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으며, 국내외 해운 회사에 입사할 목표를 가진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평소 학점 관리를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등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외부 실습에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에서 선발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해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대 LNG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돈이 목적이니까 배를 3년 타고 웃돈을 가지고 내려서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를 오래 타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4).

저는 배가 목표니까.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서 뭘 더 보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일단 무조건 배들로 외부 실습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학년 때 1학기 2학기 나눠서 가는데....어느 학기에 갈 거냐도 생각을 해야 되고. 토익 몇 점까지 맞출 건지랑 해서 어떤 선박을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카케리를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점도 좀....여학생이 특히 더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학점을 올려야 돼서 지금은 학점에 집중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2) 전인적 성장과 역량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인격적인 성장과 더불어 예비 해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체생활을 통해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으며, 규칙적인 생활과 지식의 습득을 통해 해기사로서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더불어 대학생활을 일컬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여기며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기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어딜 가든 있으니까....제가 적응을 되게 잘하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 생활을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원래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완전 개인주의였거든요. 근데 이런 힘든 걸 같이 겪으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약간 더 배려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뱃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느껴요. 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 현타가 많이 와서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1).

## 2.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구조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고려하여 종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Giorgi, 2009). 연구자들은 5가지의 본질적 범주를 선택, 통제, 어려움, 대처, 성장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이 정리하고 통합하였다.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한 진로선택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폭넓은 경험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해사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율성 없는 통제된 대학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동기들과의 단체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선배들과의 관계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선배들은 기강을 잡으려고 했고 과도한 트집으로 인해서 반감도 갖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해사대학의 특성으로 전공에 대한 생소함과 학업과 체력 관리를 병행하는 탓에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해 3학년이 되면 이수해야 하는 실습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탁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여학생을 꺼려하는 업계의 분위기로 남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기회가 주어지는 차별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해기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대학생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총체적인 어려움들은 승선을 위한 성장통이었으며,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해사대학 여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 타협하거나 공동체 활동으로 소속과 연대를 통해 심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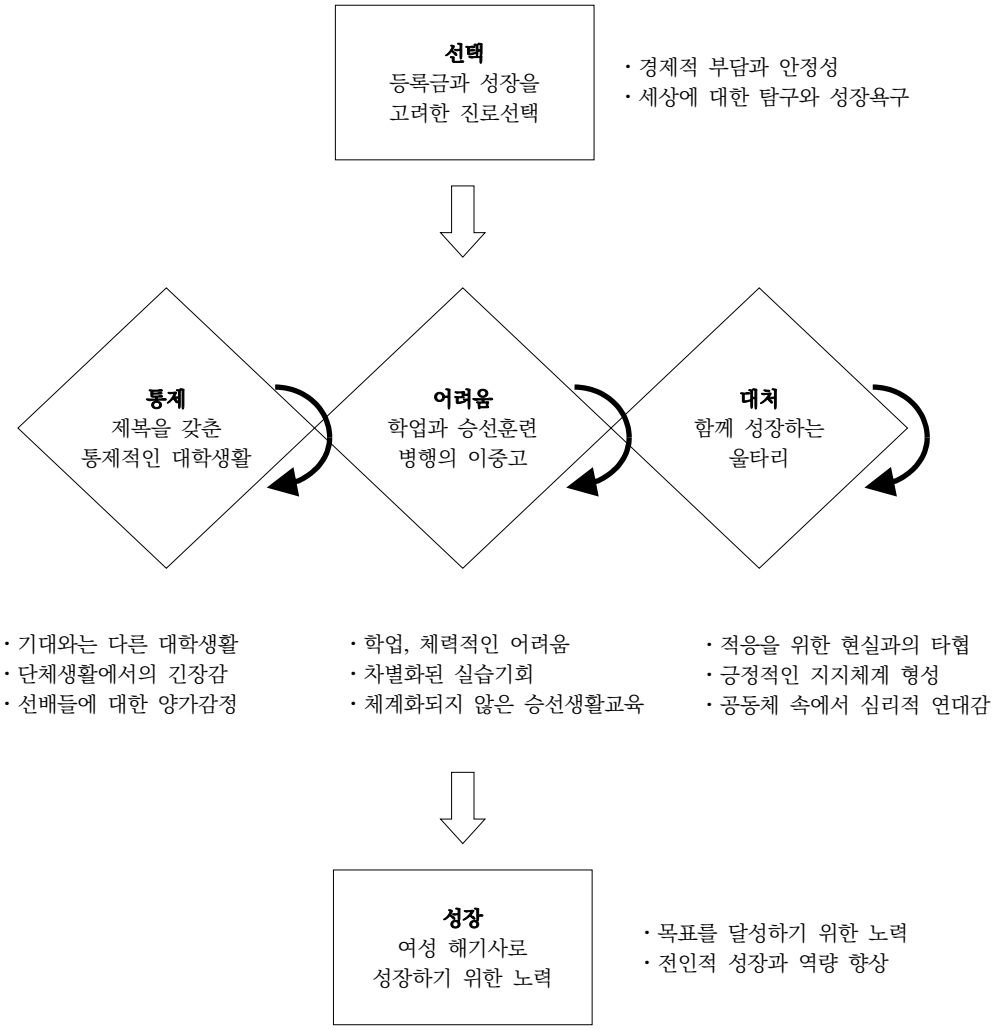



그림 1.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의 구조

안정감을 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해사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학업적, 구조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은 서로 유기적이고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진정한 해기사로서의 성장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기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바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iorgi, 1991, 2009).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에 따라 61개의 의미단위, 13개의 주제, 5개의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한 진로선택에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대학 진학 결정 요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안정추구와 높은 취업률이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학생의 승선 희망

이유로 금전적 이유 38.5%, 경제력 32.3%, 개인 자아실현 29.2%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승연 등, 2020)와 일치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24년 기준 4.1%에서 2025년 7.5%로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률은 44.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양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평균 75.8% 이상의 높은 취업률(한국교육개발원, 2023)을 보인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진로에 대한 기대가 해사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비 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학업 지속을 가능하게 하고, 졸업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로가 되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해사대학 여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해기사로서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준비부족이 진로 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유진, 김승연, 2022)를 볼 때 단순히 취업의 용이성이나 경제적 안정성만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는 개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꾸준한 탐색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복을 갖춘 통제적인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동기 및 선배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대학생활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이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대학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동기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는 어려운 교육과정을 버티고 이겨나가는 원동력이었으나, 선배들과의 부정적인 관계나 생활교육지도관들과 교수의 무관심은 연구참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모나 친구 또는 교수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보람, 이정미, 2019; Rahat & İlhan, 2016), 친구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상준, 2021) 등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아직 대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해사대학 구성원들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낸다면 학생들의 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업과 승선훈련 병행의 이중고에서 해사대학은 고등교육체계에서 학문 중심의 일반 대학과는 달리 대학교육과 국가자격교육, 직업훈련, 실습 및 집단 생활이 결합되어 있는 특수한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해사대학 여학생들은 학업에 있어서 전문성과 높은 난이도, 규율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학습에 대한 자율성이 충돌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해사대학 여학생들은 승선생활교육에서 유발되는 사생활에 대한 통제와 신체 및 자유에 대한 규제에 관해 억압과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꾸준히 제기되어온 승선생활교육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연구(이상일, 유진호, 최정환, 2016)와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체생활을 통해 선박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고, 자제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교육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좌절감을 경험하게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기 교육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거나 교육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상황적 여건들을 고려하여 세심한 지도와 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해사대학에서는 효율적인 승선생활교육을 위해 생활교육지도관과 생활지도교수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수 인원의 생활교육지도관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사관부와 교육지원부가 이를 보조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일부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문제점(최석윤, 오세진, 김태균, 김희연, 방호삼, 2003)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지도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해사대학의 승선생활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메뉴얼을 개발하여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여성 해기사의 진출 범위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와 풍토는 선박・해운

업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해사대학 재학 시절부터 위탁 실습 기회의 부족과 여성에 대한 선사의 거부감 등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21년 동안 기관과 항해 계열의 선사 실습 티오 중 남학생 수 2,658명 대비 여학생 수 248명이며, 실습 비율로 평균 9.3%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최은순, 2023)와 의미를 같이 한다. 향후 첨단 기술 기반의 자율운항 선박이 해운업계에 도입됨에 따라, 데이터분석과 시스템 감시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이 강화되면서 선박운항의 자동화로 물리적 노동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여성 해기사가 적극적으로 해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임을 예상할 때, 학교와 선사에서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인재 양성과 발굴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학생의 선사실습 티오를 확대하고,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의 합리적인 여성 선발 시스템 마련과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함께 성장하는 울타리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 체념하거나 대학생활의 필요성을 인지적으로 강조하는 등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함수민, 이정희, 2020)와 같이 해사대학 학생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활 적응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학생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건전히 해소할 수 있는 문화 여가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완화해 준다면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해사대학 학생들은 단체생활로 인해 일반대학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 갈등이 유발되기 쉽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학업 중단에 이르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해사대학 학생들에게는 향후 승선을 대비한 정서 조절관리 능력과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므로, 해사심리영역에서의 전문적인 학생심리 지원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 해기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선박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과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근로 환경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해상에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해사대학이 가지는 특수한 목적에 걸맞게 해기사로서 성실히 진로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졸업 이후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와 승선을 기대하는 선박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해사대학 여학생의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83.9%가 해양 관련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승연 등, 2020)와 관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전공에 관한 이론적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대학에서는 미래 해운·선박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업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최신 선박기술에 관한 내용과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기술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해기사 여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경험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의 마지막 단계인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질적 주제 간의 관계들을 바탕으로 선택, 통제, 어려움, 대처, 성장의 과정으로 주제들 간의 연결성을 구성하였다(Giorgi, 2009). 연구참여자들은 등록금과 성장을 고려하여 해사대학으로 진로선택을 하였으나 대학생활 초기부터 제복을 갖춘 기숙사 생활 등의 통제적인 대학생활로 인해서 대학생활 초기부터 긴장감을 갖고 있었다. 학업, 체력훈련, 승선생활교육 등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남학생들과 체력 훈련, 실습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적응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선배, 동기 등과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형성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사대학 여학생들은 여성 해기사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해사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여학생들이 해기사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원자료를 기반으로 의미단위들을 연결시키고, 주제들과 범주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해사대학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여학생들의 경험과 의미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해기 교육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학생을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환경 조성, 형평성을 고려한 실습 지원 방안, 해운산업 진출의 다양성 확보 등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 여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사심리영역에서의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원 확대,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들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와 자료수집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 결과를 확장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직 대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급 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에 있어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상급 학년의 여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여성 해기사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국내에 소재한 국립 해기사 양성 대학은 단 두 곳으로 대학 간 교육문화와 분위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학별로 남녀 학생들의 경험을 세밀하게 살펴본 후 해기사 양성 교육 기관에 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 및 승선생활관의 내부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워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 관찰, 학과 공문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해사대학 학생들의 경험에 관해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김승연, 박준모, 정대득 (2020). 해사대학 여학생 특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목포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6(4), 346-352. https://doi.org/10.7837/kosomes.2020.26.4.346

김인수, 성기은, 조선웅, 조원선, 김호현, 황원준 (2021). 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토픽 모델링 분석. **국방연구**, 64(1), 87-114. https://doi.org/10.23011/jnds.2021.64.1.004

박유진, 김승연 (2022). 해사대학 여학생들이 인식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5), 764-772. https://doi.org/10.7837/kosomes.2022.28.5.764

여성신문 (2022. 6. 13). 한국해양대 여학생 39%만 배 타고 실습 나가...인권위 “성차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55에서 2025년 6월 23일 인출

연합뉴스 (2023. 7. 30). 떠나는 선원들…“2050년 한국인 해기사 4천명 넘게 부족”. https://www.yna.co.kr/view/

AKR20230729036500003에서 2025년 6월 23일 인출

이상일, 유진호, 최정환 (2016). 해사대학 승선생활교육의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2(5), 430-443. https://doi.org/10.7837/kosomes.2016.22.5.430

이상준 (202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8(4), 93-114. https://doi.org/10.15284/kjhd.2021.28.4.93

조보람, 이정미 (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1-11. https://doi.org/10.14400/JDC.2019.17.4.001

최석윤, 오세진, 김태균, 김희연, 방호삼 (2003). 승선생활관 교육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고찰. **해사산업연구소논문집**, 14, 7-17.

최은순 (2023). 우리나라 해기교육・훈련의 성비 불균형의 현황과 문제: 한국해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8, 239-281. https://doi.org/10.35158/cisspc.2023.04.28.239

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진천군,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함수민, 이정희 (2020).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그릿을 매개변인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327-348. http://doi.org/10.22251/jlcci.2020.20.20.12.327

Creswell, J. W. (201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New York: Sage.

Giorgi, A. (1991).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https://doi.org/10.1163/156916297X00103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4.

Rahat, E., & İlhan, T. (2016). Coping Styles, Social Support, Relational Self-Construal, and Resilience in Predicting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6*(1), 187-208. https://doi.org/10.12738/estp.2016.1.0058